

골목상권 야간주차 허용·공공기관-전통시장 1대 1 매칭 등

NEWS

2025년 6월 19일 목요일

광주시, 골목상황실 가동... 소상공인 살리기 '올인'

공공배달앱 활성화 논의... 시 산하 전담 조직 신설도

광주시가 골목상권 주변 도로의 야간 주차를 허용하고, 공공기관과 전통시장·골목상점가 1대 1 매칭 지원 등을 통해 골목경제 살리기에 올인한다.

광주시는 18일 기획조정실에 지역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현장밀착형 정책 추진의 구심점인 '골목경제 상황실'을 설치하고, 첫 회의 개최와 함께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강기정 시장이 주재한 이날 첫 회의에는 광주시 실·국장과 공공기관장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광주시와 공공기관은 '골목경제 상황실' 협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모색에 나섰다.

공공기관에서는 장보기, 점심식사 골목 식당 가기, 전통시장 이용 확대, 소상공인 홍보광고 제작 등 기관별 소비 촉진 및 골목경제 활성화 방안을 공유했다.

이들은 또 골목상권 주변도로 야간주차 허용, 시·공공기관과 전통시장·골목상점가 간 1대 1 매칭 지원, 광주공공배달앱 활성화, 골목상권 전담조직 신설 등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회의를 마치고 광산구 금호타이어 인근 골목상권 내 식당으로 이동해 오찬을 하는 등 지역상권 살리기에 동참했다.

광주시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골목경

제 상황회의'를 본격 운영하고, 골목경제 회복을 위한 현장 밀착형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골목경제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광주시 산하에 골목상권 전담조직 신설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광주시는 오는 20일 공공배달앱 활성화 간담회를 열어 배달 수수료 절감 및 공정한 판로 확보 등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강기정 시장은 "많은 시민들이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며 "우리는 온 힘을 다해 골목경제 살리기에 올인해야 한다. 광주시민들이 전국 투표를 1위로 새 정부에 걸고 있는 기대를 보여준 만큼 광주시와 공공기관에서는 시민들의 심장이 새로운 희망으로 두근거리길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투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



강기정 광주시장이 18일 시청 기획조정실장실에서 골목경제 상황실 현판 제막을 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

강기정 시장 "파업 즉각 중단... 요금 현실화 논의"

"피해는 학생·시민"... 지노위 조정 임금인상 3% 수용 촉구

강기정 광주시장이 시내버스 파업과 관련 "노조 측은 지방노동위원회가 제시한 3% 인상안을 수용하고, 파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파업을 종료한 이후에는 논의

를 이어갈 협상 테이블을 구성해 버스요금 현실화 방안을 포함해 추가 임금조정안을 논의하자"고 밝혔다. > 관련기사 5면

강 시장은 18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오

전 시 30분부터 2시간 20분동안 광주시가 긴급 투입한 전세버스 순환01-B를 타고 승객들을 만나고 버스 운행 상황을 살폈다"며 "현장에 가보니 버스 파업의 피해는 오롯이 매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어린 학생들과 시민들의 몫이었다. 파업은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시장은 "임금뿐 아니라 정년 연장, 준공영제 등 시내버스 전반에 대한 합리적 개선안도 큰 틀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지난 15일에도 긴급 대시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파업 중단 및 협업체 구성을 통한 노동자 처우 개선,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방향 등을 논의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시내버스 노사는 그동안 6차례의 자율 교섭과 4차례의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조정

절차를 거쳤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가장 최근인 지난 13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사측 제시안 2.5% 인상안과 노조측 요구안 5% 이상 인상안을 절충해 3%의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사측은 수용한 반면 노측이 거부해 협상이 결렬된 상태다.

광주시는 이날부터 출퇴근시간에 버스 이용 혼잡도가 높은 14개 노선에 비상수송 차량인 전세버스 42대를 긴급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전세버스는 기존 시내버스와 달리 시민

혼란이 예상돼 버스마다 광주시 공무원이 동승해 현장에서 시민 불편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버스는 시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한편 강 시장은 이날 오전 5시30분부터 2시간 가량 전세버스에 탑승해 버스 운행 상황 등 현장을 살펴봤다. 강 시장은 버스에 탑승한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재 시내버스 파업 상황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더현대 광주, 교통난·상생대책 병행해야"

문인 복구청장 "개선책 필요" 소상공인 보호방안 등도 제안

문인 광주 복구청장은 18일 '더현대 광주'의 건축허가 조건부 승인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시의 대차보 정책으로 '더현대 광주' 일대의 교통난 해소는 어렵다"며 실질적인 교통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문 구청장은 "광주시민의 오랜 염원이었던 더현대 광주의 건축허가를 조건부로 최종 승인했다"며 "광주 미래와 시민 삶에 직결되는 무거운 고민을 동반한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이행조건에는 광주-KIA 챔피언스 필드 이용객의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주차장 이용, 개발행위 준공 후 교통 모니터링, 공사 중 교통 개선대책, 녹지 정관 계획 사업 수립 등이 포함됐다.

문 구청장은 "더현대 광주가 들어설 광천권역 일대는 프로야구 경기일 교통난과 대규모 재개발, 동운고교-운암사거리 병목현상, 도시철도2호선 공사 등으로 교통부담이 상당한 상황이다"며 "광주시의 대차보 정책으로는 하루 평균 29만대까지 폭증할 교통량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고 설명했다.

복합쇼핑몰 상권영향평가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결과에서 연간 더현대 광주 방문객 수를 3000만명으로 예상한 만큼 이를 대중교통과 도보, 자전거 이용만으로 해소할 수 없을 것이라 설명했다.

더구나 광주시가 대안으로 추진 중인 도시철도 광천상무선 역시 정상적으로 추진될 경우 2032년 준공 예정인 만큼 더현대 광주 개점 시기인 2027년까지 최소 5년 이상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즉, 더현대 광주 개점 전과 후 교통 수요를 현재 교통 인프라로 감당하기에



문인 광주 복구청장은 18일 '더현대 광주'의 건축허가 조건부 승인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중공 전까지 뚜렷한 교통 대책이 없으면 그 피해는 복구민뿐만 아니라 광주시민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광주시가 복구가 건의한 교통 개선책과 대차보 정책을 병행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과의 상생 방안 마련도 주문했다.

문 구청장은 "전통상권 보호는 행정의 책무인 동시에 변화하는 소비환경 속에서 새로운 소비공간을 원하는 젊은 세대의 수요도 외면할 수 없다"며 "이런 상충된 이해를 조화롭게 조율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다"고 언급했다.

이어 "광주시에서는 복합쇼핑몰 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 소상공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모두가 만족할 만한 상생 방안을 마련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구청장은 "복구가 조건부로 허가한 내용이 완벽한 정답은 아닐 수 있다"며 "그러나 부족한 부분은 광주시와 사업자 측이 보다 적극적이고 현명하게 추가 보완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더현대 광주를 포함한 광천권역 대규모 개발 사업은 향후 광주의 도

시 경쟁력과 시민 삶의 질을 좌우할 중대한 사안"이라며 "광주시가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추진한 것처럼 교통·상생 대책도 속도감 있게 확정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복구는 옛 전남·일신방직 부지 개발에 따른 교통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갖고, 광주시에 22개(교통 관련 17개)의 개선대책을 건의했다.

광주시는 광천사거리 지하차도 개설, 광주천변 도로 확장 주차장·교량 신설 등 9가지 건의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복구가 제안한 운암사거리 지하차도 개설과 동운고교 기하구조 개선은 검토하기로 했다.

복구는 이날 옛 전남·일신방직터에 들어설 복합쇼핑몰 '더현대 광주' 건축 허가에 대해 사후 교통·환경 대안 등 4가지 이행 조건을 부과해 조건부 승인했다.

더현대 광주는 전남·일신방직 부지(3만3000㎡·1만평)에 2027년 개장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높이 60m, 길이 201m, 폭 116m의 지하 6층~지상 8층 연면적 27만4079㎡ 규모의 쇼핑, 문화, 여가 시설 등을 갖춘 전국 최대 규모의 복합쇼핑몰이다.

이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고객 한분 한분
2,300만 고객이
MG의 든든한 시작이자
우리의 뿌리입니다

당신이 키운 금융
당신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뿌리가 든든한 금융

MG 새마을금융